# 군산 '푸드플랜' 지역경제 알찬 밑거름

##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625농가 생산 친환경 농산물 가공 3개 로컬푸드직매장 1200농가 농산물 출하 소득 창출

군산시가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를 자체 소비하는 먹거리정책을 펼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다. 군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 〈군산시 제공〉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를 자체 소비하는 먹거리정책을 펼치며,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동반 상승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시는 농업의 범위를 '농업인의 생산에서 소비자의 밥상까지'로 넓히기로 하고 지난 2018년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지역에서 소비시키기 위한 먹거리 정책 추진에 밑거름이 됐다.

군산지역은 1만6112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가수는 6973농가다. 이 가운데 대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는 2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80% 농가는 경작면적도 작고 농가소득도 도심지역의 근로자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 먹거리 순환 종합계획 정책은 중소가족농, 고령농, 귀농자들이 농촌지역에서 일정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한정된 농지에서 다양한 품목을 재배, 군산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생산된 먹거리들이 도심의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플랫폼을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농업 정책이다.

시는 128개 3만1000명의 학생,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임산부뿐만 아니라 은평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전라북도내 타지역의 학교급식 등 지역먹거리를 공급하고 있다.

시에서 출연한 공공형 지원조직인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625농가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과 지역가공업체(농부의 식품공장)의 다양한 가공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농부의 식품공장은 74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가공해 학교급식, 로컬푸드, 직거래 등을 통해 판매해 가공에 부가가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또 현재 지역 내 3개의 로컬푸드직매장에는 1200여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출하해 소득을 올리고 있다.

김선주 군산시 먹거리정책과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먹거리재단에서 운영하는 직매장 1개소와 동군산농협에서 운영하는 직매장 1개소가 추가로 오픈하여 운영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가족농 및 귀농자들이 지속해서 로컬푸드정책 및 푸드플랜정책에 참여하고 있어 기술보급과의 기획 생산계와 재단 생산관리팀의 노력으로 과채류 및 다양한 품목을 연중 공급할 수 있는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정읍시 지역 우수 복지시설에 포상금 준다

## 올해부터 인센티브 지원 최대 2000만원…11일까지 신청

정읍시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질과 운영 여건 향상을 위해 우수 복지시설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나섰다.

정읍시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통한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우수 복지시설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원한다.

지역 내 생활 및 다중 이용시설 40개소가 대상이며 그 중 최종 5개소를 선정해 총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2~3년에 한 번 중앙부처의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매년 지자체와 전북도의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받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제재적인 성격으로 모범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 시설 운영 개선 등에 괄목할만한 노력과 성과를 보인 상위 시설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우수시설 지원 신청은 오는 11일까지며, 신청을 희망하는 시설은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시설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사표 점수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 인센티브 지원 우수시설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종사자 노후 컴퓨터 교체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과 워크숍 개최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시설 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종사자에게는 격무에 대한 위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익산시, 문해 학습자 평생 학습 지원 강화

## 지난해 10월 문해교육센터 설치 올 18개 지역 51개반 573명 교육

익산시가 문해 학습자들의 평생 학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익산시는 지난해 10월 평생학습관 부설 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지원을 다각화하고 있다.

특히 교육 접근성이 낮은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성인문해교육인 '행복학교'를 센터 설치에 따라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12개 읍·면·동 23개반 26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펼쳤으며 올해는 18개 지역으로 확대해 51개반 573명을 교육한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문해교육센터 초등·중학 과정이 전북도교육청 학력 인정 프로그램으로 지정되면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낭산면·금마면에서 운영되는 초등과정 2개소와 함열읍·모현동에서 운영되는 중학과정 2개소 교육을 이수하면 검정고시 없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영어를 접할 기회가 적었던 중·고령층 시민들을 위해 알파벳부터 파닉스(발음 중심 어학 교수법)까지 익힐 수 있는 '왕초보 영어반'과 디지털 소외 중·고령층 시민들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생업이나 장애, 근거리 학습장의 부재 등으로 인해 집합 교육장에 나올 수 없는 문해 학습자에게는 상담을 통해 일대일 방문수업 또는 소규모 학습자를 지원하는 '배달 학당'도 운영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라며 "배움의 시기를 놓친 시민 한 분 한 분의 배움의 열정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남원시 이륜자동차 204대 배출가스 면소재지 출장검사

남원시가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출장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9일부터 13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진행된다.

정기검사 대상은 204대다.

시는 면소재지 7개소를 출장장소로 정해 운영한다.

검사 일정은 9일 금지면행정복지센터, 남원농협 대산지점 앞이다.

10일에는 덕과면행정복지센터와 사매면행정복지센터, 12일에는 산동면행정복지센터와 주천면행정복지센터, 13일에는 인월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해당 읍면에 거주하지 않아도 검사가 가능하다.

대상차량 소유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5000원(카드, 현금)을 꼭 지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순창 버스킹'에 출연하세요

## 16일까지 공연팀 10팀 모집

순창군이 지역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지친 군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순창 버스킹' 〈사진〉 참여 공연팀을 공모한다.

전북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공연팀을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순창 버스킹' 공연팀 10팀을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연팀은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신청서와 함께 공연 동영상을 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계에 방문, 우편, e-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선발된 공연팀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순창읍 중앙쉼터 및 일품공원 등에서 공연을 펼치게 되며 공연료도 받을 수 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 고창군 2단계 공공근로사업 본격 추진

## 취약계층 근로자 84명 선발

고창군이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군은 앞서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6~15일 참여자를 모집했다.

이후 모집자를 대상으로 가구소득, 재산기준 등을 고려해 총 점수가 높은 순으로 근로자 84명을 최종 선발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는 오는 7월 말까지 행정 정보화사업, 사회복지 사업, 환경정화사업 등 총 43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군은 올해에만 1단계부터 2단계까지 모두 160명을 선발했고 이를 통해 청년층 및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선발되지 못한 인원에게도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 로컬JOB센터 등을 통해 구직등록, 맞춤형 1:1 취업 상담 등을 지원해 구직을 원하는 군민은 최대한 취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일자리를 찾는 군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업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발굴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